



# 섬에 비친 인간... 7월엔 '황톳빛 제주화' 투어

제주가 낳은 화가 변시지 동·서양이 만난 조형언어 기담미술관엔 상설 전시 한라일보는 초대전 작품 돌문화공원 누보도 조명

이 계절 '황톳빛 제주화'를 찾아 떠나 보자. 화업의 여정 내내 폭풍치는 제주 바다를 품었던 변시지(1926~2013)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제주에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고인이 명예관장을 맡았던 서귀포시 기담미술관엔 '우성 변시지 전시실'을 뒀다. 미술관 이름에 붙은 '기담'을 변시지 선생의 호로 잘못 알고 있을 정도로 1987년 시립으로 세워진 기담미술관은 오랜 기간 변시지 상설 작품으로 특화되어 왔다. 서귀포시 법환 출신 제일동포 사업가 기담 강구범 선생의 증여로 탄생한 기담미술관에는 현재 1980년대 이후 그려진 변 작가의 '제주화' 화풍 작품들이 내걸렸다. 캔버스와 유채(油彩)라는 전통적인 서양화의 재



한라일보 1층 갤러리 이디에 전시되고 있는 변시지의 '떠나가는 배'.

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황토색 바탕에 먹색으로 그려낸 조형기법은 수묵화와 닮아있다. 기담미술관은 이를 "동양사상과 미의식에서 비롯된 새로운 조형미의 발견"으로 해석하며 "(변시지 선생은) 일본과 서울생활을 거쳐 1975년 제주로 귀향한 후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과 그 속에 살아가는 제주인을 통해서 인간 본성을 통찰하며 '제주화'라는 독특한 화풍을 완성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8일 한라일보 1층에 문을 연 갤러리 이디(ED)에도 변시지 작품이 놓였다. 7월 17일까지 계속되

는 '제주, 제주 너머' 3인 초대전 중 한 명으로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변시지 선생의 예술 세계를 살펴도록 구성했다. '폭풍의 바다 1', '좌도 빈집 우도 빈집', '떠나가는 배', '낙시' 연작, '기다림', '해녀', '거친 바다' 등은 '하늘' 등이 나왔다. 한미라 갤러리 이디 관장은 이들 작품에 대해 "제주 풍광을 토대로 한 대상의 재해석, 역동적인 표현으로 제주 정체성과 인간의 실존을 담아내고 있다"고 했다. 제주돌문화공원에 자리잡은 공간 누보(대표 송정희)에서는 '바람의 길, 변시지'전을 이어가고 있다. 동명의 화집 발간을 기념해 누보 개관에 맞춰 기획한 전시로 지난 6월 4일부터 시작돼 7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 전시엔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에서 2007년부터 10년간 상설 전시했던 '난무'와 '이대로 가는 길'이 제주에서 처음 공개되고 있다. 누보는 "가장 지역적인 주제를 반영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했던 변시지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 사진에 한라산 붉은겨우살이의 서사

사진가 정상기 첫 개인전 7월 12일까지 KBS제주

사진을 찍는 그는 한라산을 두고 '최고의 놀이터'라고 표현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저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내고 있어서 사진가는 카메라를 들고 그 뒤를 쫓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다. 정상기 사진가가 '애인의 공간'이라 칭하는 한라산에서 만난 풍경으로 1일부터 첫 개인전을 펼치고 있다. 이달 12일까지

KBS제주 1층에서 열리는 '붉은겨우살이'전이다. 겨우살이는 기생식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데 대개 열매가 노란색을 띤다. 작은 키와 비례해 자그만 열매를 지닌 겨우살이는 약용식물로도 주목받는다. 정 작가가 이번에 붉은겨우살이는 한라산 1100고지 이상에 서식한다. 6년 전 겨울, 영실코스로 윗세오름까지 오르는 길목에서 온통 새하얀 세상 속에 붉은 열매를 매달고 있는 붉은겨우살이를 보고 그는

단박에 빠져들었다. 현무암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대비를 이루는 붉은겨우살이에 대해 그는 세상 모든 이의 사랑을 담았다고 했다. 정 작가는 "숲속을 헤매다가 쓰러져 있는 아름드리 참나무를 본다. 겨우살이가 기생해 살았던 참나무는 수십 년 간 수액을 빼앗기며 고통스러워하다 죽은 것"이라며 "겨우살이의 서사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전시 관람객 중 10명을 추첨해 플라야강원(주)에서 후원하는 제주-양양 양북항공원을 제공한다. 문의 010-3691-9011.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정상기의 '붉은겨우살이'.

## 돌담갤러리 '미녀삼총사'... 류제비·이유미·이유진전

지난 5월부터 제주시 중앙로 제주 KEB하나은행 지하1층 돌담갤러리에서 릴레이 개인전을 열어온 류제비·이유미·이유진 작가가 이번엔 3인전을 펼친다. 7월 2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지는 '미녀삼총사'전이다.

이들 여성 작가 3인은 지난해 개최된 아트제주 2019특별전 '엔젤스: 미녀삼총사'전의 주인공이었다. 올해도 류제비·이유미·이유진 3인전의 기획 아래 '미녀삼총사'란 이름으로 다시 뭉친 이들은 '우리를 천사(미녀)로

부르지 마라, 우린 아티스트다!'란 부제 아래 지난 개인전과 또 다른 작품들로 관람객들과 만난다. 회화, 조각 등 20점 가까이 나온다. 이유미 작가는 종이조각 작품인 '기다림', '우주진(宇宙塵)', '무가지보(無價之寶)'를 준비했다. 류제비 작가는 '바람이 시작되는 곳' 시리즈 3점을 비롯 '별이 빛나는

밤', '여정' 등 회화를 내놓는다. 이유진 작가는 '머리가 발을 만났을 때...' 연작을 출품한다. 각종 신체 부위들을 조합한 조각 작품과 신체의 일부를 그릇에 접목시킨 '신체-그릇' 시리즈를 볼 수 있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5시에 예정되어 있다. 문의 757-2171. 전선희기자

## 시(詩)로 읽는 4.3 (65)

### 서우봉 해변에서

한승엽

마을 안팎이 모두 어두컴컴해졌다  
중산간 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안으로 내려오며 심하게 질푼  
거렸다  
북쪽 바다와 맞닿은 벼랑과 모래  
밭으로 등 떠미는 바람이 휘몰아  
쳤다  
볼수록 종적을 감추고 멀리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겨울 파도가  
밀려와 가마니 위에 차디찬 육신  
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손금에 세월의 아픔이 고여 빠  
마디가 쭈시는 날이면, 밀려나는  
물결에 씩임을 하여도 하늘의  
안색이 흐렸다  
아직도 벼랑 안쪽에선 새들의  
공지가 두드러거리고 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함덕리민들은 역사의 회오리를 견뎌내야 했다. 4.3초기 무장대가 함덕리를 장악하고 지서는 번번이 무장대의 피습을 받았다. 주민들은 무장대의 요구에 따라 식량과 의복을 산으로 올려 보냈다. 산에 올라간 젊은이들은 산에서 '레포' 노릇을 했다. 레포란 'reporter'에서 유래한 말로 산에서 '연락병'으로 지칭했다. 함덕국민학교에서는 9연대·2연대 등 군부대 1개 대대가 주둔하였고, 해수욕장과 서우봉은 바로 학살터였다. 조천면 관내 주민 231명, 제주읍 관내 주민 28명, 구좌면 관내 주민 19명, 성산면 관내 주민 2명, 남원면 관내 주민 1명 등 총 281명이 희생된 곳이다. 1948년 4월 3일 함덕지서에는 5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2명이 그날 무장대에 의해 납치되었다. 그 뒤 경찰관이 증원되었다. 5·10선거 무렵에는 10명으로 늘어났다. 토벌작전이 본격

적으로 착수된 5월 13일 무장대의 역습이 있었다. 바로 함덕지서 습격사건이다. 한낮에 경찰관 인명피해가 7명에 이른 사건이다. 무장대의 손에 생포된 경찰관 3명은 대출지경으로 끌려가 피살되었다. 또 경찰관 2명은 지서건물 속에 숨어 있다가 지서건물이 불타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런 와중에 지서 앞에서 경찰관 가족도 살해당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이후 함덕에 응원경찰대 30명을 배치하였다. 함덕리(11월 4일), 신흥리(11월 4일), 조천리(11월 6일) 등 마을에서 무장대 습격에 대한 토벌대의 보복학살이 벌어졌다. 11월 25일에는 조천면 초대 면장이자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 조천면 건준위원장, 조천면 인민위원장, 제주도 민선 부의장 등을 역임했던 김시범이 함덕리 서우봉에서 토벌대에 의해 총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 체험중심 시 쓰기 교실

(사)제주문화포럼(원장 정예실)은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체험 중심의 시 쓰기 교실을 운영한다. 양영길 시인이 강의하는 시 쓰기 교실은 은유 연습, 이미지 연습, 시간 연습, 상상력 연습, 시적 화법 연습 등을 포함한 조각 작품과 신체의 일부를 그릇에 접목시킨 '신체-그릇' 시리즈를 볼 수 있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5시에 예정되어 있다. 문의 064)722-6914. 전선희기자

### 중장년 문화봉사자 모집

본태박물관(관장 김선희)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차 문화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문화자원봉사자는 상설전시관에서 활동하며 주로 작품 안내, 전시질서 유지, 작품해설을 담당하게 된다.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문화자원봉사를 위해 퇴직자를 우대한다. 대상자는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되고 전시관 심화교육을 받은 뒤 활동하게 된다. 활동 기간 중에는 중식, 교통비, 소정의 실비가 주어진다. 문의 064)792-8108.

## 취 임 위 축

**취 임**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 7대 총재**



**고 권 진**  
(축산학과 28회)

**취 임**

제주돌담로타리클럽  
**제 9대 회장**



**강 언 민**  
(축산학과 39회)

**위 축**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김 한 중**  
(축산학과 26회)

취임 및 위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서부 축산회 회원일동

## 취 임

**서귀포소방서장**



**양 인 석**

서귀포소방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처가 형제 일동

## 취 임

**서귀포소방서장**



**양 인 석**

서귀포소방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 : 양동진 · 모 : 김용숙**  
**가족일동**